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VOL.24 NO.3 : 190-194 (2011)

유방 통증과 소양증을 주소로 하는 유방 켈로이드 환자 치험 1례 보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양나래, 이진무,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이창훈

ABSTRACT

A Case Report of Breast Keloid with Pain and Pruritus

Na-rae Yang, Jin-Moo Lee, Jung-Hoon Cho,
Jun-Bock Jang, Kyung-Sub Lee, Chang-Hoon Lee
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on breast keloid.

Methods: The acupuncture was used for relieving pain and pruritus. The efficacy of treatment was evaluated with inspection and patient's report.

Results: After treatment, the symptoms of breast keloid were improved.

Conclusion: This case report shows that the acupuncture relieves the pain and pruritus caused by keloid.

Key words: Breast keloid, Pruritus, Acupuncture

교신저자(이창훈)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4-5번지 경희대 강남경희한방병원
전화 : 02-3457-9140 이메일 : lchgdsl@hanmail.net

Ⅰ. 서 론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흔은 주로 절상, 열상, 화상 등의 피부 손상 후 손상된 조직의 복구 과정 중 진피내 섬유 조직이 과성장하거나 경화되어 발생하는 결절성 종괴로[1], 병리조직학적으로는 풍부한 교원질과 섬유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2]. 비후성 반흔은 손상받은 부위에 국한되며 1-2년 경과 후 점차적으로 소실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켈로이드 조직은 정상 흉터 경계를 넘어서 진행하며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절제 후에도 재발하는 특징이 있다[3]. 피부 장력이 높은 부위(어깨 세모근 부위, 가슴, 목, 팔다리의 굽힘쪽)에 다발하고, 이차적으로 회복된 상처, 만성염증 하에서 형성된 상처 등이 켈로이드 형성의 흔한 선행요인이다[4]. 이러한 질환들은 미용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가려움증과 동통 등의 자각 증상 및 관절 부근 병변에서의 운동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5].

양방병증에서의 켈로이드 혹은 흉터각화증은 한의학에서는 창구견경(瘡口堅硬)이라고 한다. 창구견경은 창독(瘡毒)이 오래되어 창구(瘡口)가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뜻한다[6]. 켈로이드가 다발하는 부위인 유방은 여성에게 있어 월경과 더불어 나타나는 뚜렷한 이차성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모유를 생산분비하는 외분비기관의 하나로 유방의 발육과 기능은 여성 생리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直指方>에서는 '男子 以腎爲重 婦人 以乳爲重 上下不同而性命之根一也'[7]라고 하여 유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女科玉尺>에서는 '婦人之疾 關系最巨者 則莫如乳'[8]라고 하였다. 이렇듯 여성질환에서 유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9].

국내의 켈로이드와 관련된 한의학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유방 부위에 발생한 켈로이드로 인한 유방통증과 소양증으로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 1례를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1. 성 명 : 허 ○ ○ (F/76)
2. 초진일 : 2011년 3월 8일
3. 주소증 : 켈로이드로 인한 유방 통증과 소양증
4. 발병일 : 30여 년 전 (1980년 경)
5.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6.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7. 현병력

상기환자는 보통 체격의 기혼 여성으로 약 30여년 전부터 좌측 유방 부위의 통증과 소양증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local 피부과에서 2년간 po-med 후 별무변화함. 치료 포기하고 있던 차에 보건소 내원함.

8. 望聞問切

食慾, 大便, 小便은 정상이나 消化 不良, 不眠 경향이 있었다. 面色은 蒼白, 萎黃하였다. 脈은 弱하고 舌質紅, 舌苔白薄하였다.

9. 동반증상 : 膝痛
10. 치료내용

1) 침구치료

2011년 3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주일에 2-3차례, 총 32회 침구 치료 시행하

였다. 침구 치료는 켈로이드가 발생한 켈로이드 부위에 단침을 사용하여 산자법으로 시행하였다(Fig. 1, Table 1, Fig. 2, Fig. 3,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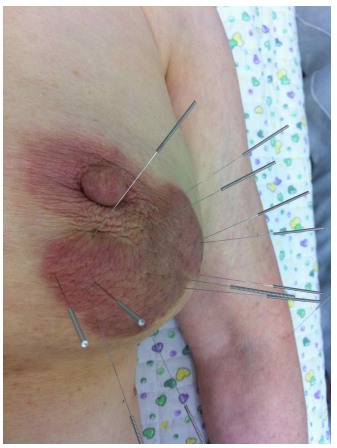

Fig. 1. Methods.

Table 1. The Progress of Condition and Treatment

Date	Conditon	Treatment
2011. 3. 8	소양감 VAS10	해당부위 산자법 (25 X 40)
2011. 3. 17	소양감 VAS 8	
2011. 3. 21	소양감 VAS 6, 최초로 발침 후 출혈 발생	
2011. 4. 1	소양감 VAS 4	
2011. 4. 4	소양감 VAS 4, 침 종류 바꾼 후, 심부통증 호전 시작	해당부위 산자법 (35 X 40)
2011. 4. 20	소양감 VAS 3	
2011. 5. 3	소양감 VAS 2	
2011. 6. 3	소양감 VA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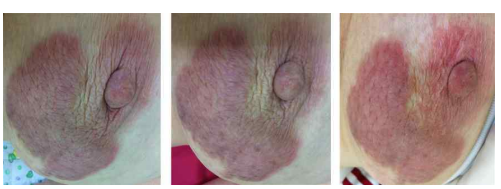

Fig. 2. Breast Keloid
2-a. 2011. 3. 8
2-b. 2011. 3. 17
2-c. 2011. 3. 21

Fig. 3. Breast Keloid.
3-a. 2011. 4. 1
3-b. 2011. 4. 4
3-c. 2011. 4. 20

Fig. 4. Breast Keloid.
4-a. 2011. 5. 25
4-b. 2011. 6. 3

Ⅲ. 고 찰

켈로이드는 진피내 아교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외상의 경계를 넘어 진행하는 융기된 흉터를 지칭하며,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 가능하지만, 가슴, 어깨 , 위팔, 위쪽 등, 얼굴, 귓바퀴 등에 호발하며, 손, 발바닥, 생식기, 위눈꺼풀, 점막 등에는 드물게 발생한다. 켈로이드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 부위의 조직 장력이 커지면서 섬유모세포가 정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아교질을 합성, 분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병변에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에는 TGF-β가 병인에 특히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켈로이드는 보통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으나 관절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운동 제한이나 기능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통 및 압통, 소양감, 이상감각 등의 자각증상이나 미용적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켈로이드에 대한 치료로서 현재까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외부 압력 요법, 외과적 절제술, 냉동 외과술,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 인터페론 병변 내 주사, 실리콘 젤 도포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단독 혹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며, 연구자에 따라 치료효과도 매우 다양하게 보고된다. 재발 여부 또한 치료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인데, 특히 수술요법의 경우 절제술 후 장기간 추적 관찰시 50-80% 정도의 재발을 경험하기도 하며,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 단독요법의 재발률은 9-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0].

한의학적으로 켈로이드라는 용어는 없으나 창구견경(瘡口堅硬)의 범주로 인식한다. 창구견경은 창독(瘡毒)이 오래되어 창구(瘡口)가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뜻하며, 홍승단으로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11]. 켈로이드의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통증과 소양감이 대표적인데, 동의보감 皮問의 痒痛問에서 가렵고 아픈 것은 피모에서 생기며, 여러 가지 가려움증은 허한 것이라고 하며, 혈이 살과 주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운 것이라 하였다. 보하는 약으로 자양시키고 음혈을 길러서 혈을 조화롭게 하면 살이 윤택해지면서 가려움이 저절로 그친다고 하였다. 또한, 통증은 실증이고 가려움증은 허증이다. 이 때의 허는 한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열이 조금 심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7].

증례환자는 보통 체격의 기혼 여성으로 약 30여년 전부터 좌측 유방 부위의 통증과 소양증을 주로 호소하셨고, 간헐적으로 소화장애, 불면의 증상이 있었다. 蒼白, 萎黃한 顔色과 弱한 脈을 보아 허증으로 진단하였다.

침구치료는 켈로이드 해당 부위에 留針法으로 시행하였다. 내경에서 刺針의 기전은 通其經絡, 調其血氣, 營其逆順出入之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素問 繆刺論>에서 "先以指按之痛, 乃刺之"라 한 것과 <靈樞 終始>에서 "治病者, 先刺其病所從生者也"라 한 것은 아시혈 요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12]. 아시혈 취혈법은 특히 통증에서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이므로 치료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유침법과 비유침법을 비교한 결과, 통증 치료에 있어서 유침법이 시행된 군에서 동통의 역치가 상승하였으므로[13], 유침법을 선택하였다.침자극으로 인하여 肌膚가 자극되어 氣血의 막힘을 뚫어주고, 통증에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아시혈 취혈법과 유침법으로 제반 증상의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유방부위에 발생한 켈로이드로 인해 통증과 소양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1례에 대하여 침구치료를

통해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가 1건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유사한 증례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한의학적인 치료의 유효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투 고 일 : 2011년 7월 28일
□ 심 사 일 : 2011년 8월 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8일

참고문헌

1. Shea CR, Prieto VG. Hypertrophic scars and keloids, In: Freedberg IM, Eisen AZ, Wolff K, Austen KF, Goldsmith LA, Katz SI, editors.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6th ed. New York:McGraw-Hill. 2003: 991-2.
2. Elder D et al. Lever's histopathology of the skin. 9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1004-5.
3. Berman B, Bieley HC. Keloids. J Am Acad Dermatol. 1995;33:117-23.
4. 남재희 등. 켈로이드의 병변 내 절제술 치료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9;47(6):641-8.
5. Murray JC. Scars and keloids. Dermatol Clin. 1993;11:697-708.
6. 한국전통지식포탈. 창구견경. Available from: URL:http://www.koreantk.com/servlet/DiseaseDetailServlet?cmd=1&dis_cd=D0012240&searchGbn=disease&view_type=kor&window=popup&ctrllist=D0012240&pagesize=4&sorder=1
7.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3: 271-4, 384, 534-44, 553-620, 726.
8. 나원개 주편. 중의부과학.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98;313-41.
9. 김정진 이경섭 송병기. 유방종괴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8;11(2):29-43.
10. 김호연 등. 켈로이드와 비대흉터에서 스테로이드, 5-fluorouracil 병변내 주사 및 색소 레이저 병용요법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9; 47(6):658-66.
11. 한국전통지식포탈. 홍승단. Available from:URL:http://www.koreantk.com/servlet/PrescriptDetailServlet?cmd=3&pre_cd=P0015386&searchGbn=prescript&view_type=kor&window=popup
12. 강경화 등. 형상침법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5):1157-76.
13. 윤여충 등. 침법에 따른 합곡혈 자극이 동통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998;15(2):320-9.